

최근 호주 광업투자 둔화 원인과 전망

신민이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shin@kiep.go.kr, Tel: 3460-1154)

차 례 ●●●

1. 서론
2. 최근 호주 광업부문 투자둔화 현황
3. 광업투자 둔화 원인
4.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 2004년 이후 호주 광업부문의 성장은 호주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이었으나, 최근 광업부문의 투자 및 고용 둔화에 따른 우려가 대두되어 관련 현황과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 2004~12년에 호주 광업부문의 투자, 신규자원 탐사 및 프로젝트, 고용 등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둔화하기 시작함.
 - 호주의 광업부문 자본투자는 2004년 97억 호주달러(91억 미국달러)에서 2012년 945억 호주달러(886억 미국달러)로 8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939억 호주달러로 소폭 하락했으며, 2014년 1/4분기에 190억 호주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하였음.
 - 신규자원 탐사 및 프로젝트도 2013년 전후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광업부문 근로자 수도 2013년에 전년대비 1.9% 감소함.
- ▶ 최근 호주 광업투자 둔화의 원인은 크게 1) 국제 광물-에너지 가격 하락 2)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광물-에너지 자원 수요증가세 감소 3) 광산세 도입으로 구분됨.
- ▶ 국제 광물-에너지 가격 안정 및 중국의 원자재 수요증가세 감소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호주 내 광업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기존 광업투자 확대의 결과로 호주의 광물-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은 향후 4~5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 서론

■ 호주는 세계 최대 광물생산국 중 하나로 호주경제에서 광업부문의 중요도는 매우 높음.

- 2012년 기준 호주 광업부문의 총 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는 전체 산업 총 부가가치의 약 9.6%를 차지할 만큼 광업은 전체 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호주 통계청의 산업별 수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호주 광업부문의 수출은 1,338억 호주달러(약 1,252억 미국 달러)로 전체 상품수출인 2,478억 호주달러(약 2,319억 미국달러)의 54%에 달함.

■ 2004년 이후 광업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호주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었음.

- 호주의 광업부문 자본투자¹⁾는 2004년 97억 호주달러(약 91억 미국달러)에서 2012년 945억 호주달러(약 885억 미국달러)로 8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전체 자본투자 증가의 대부분이 광업부문에 기인하였음.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호주 광업부문 총 부가가치의 연평균성장률은 5.4%로, 전체 총 부가가치 연평균성장률의 2.9%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함.

■ 그러나 최근 호주 광업부문의 투자 및 고용이 둔화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대두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관련 현황과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2. 최근 호주 광업부문 투자둔화 현황

가. 광업 자본투자

■ 2004~12년에 급격히 증가했던 호주의 광물·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국내투자가 2013년 전후로 둔화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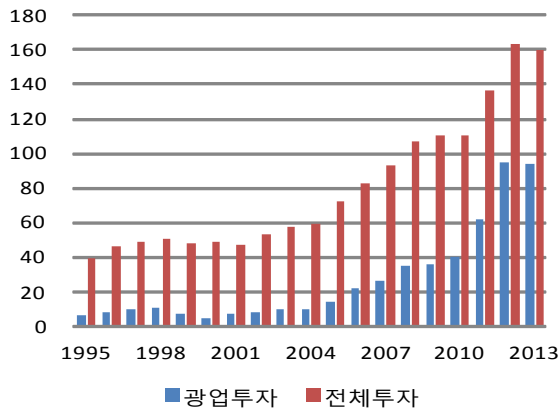
- 호주의 광업부문 자본투자는 2004년 기준 97억 호주달러(약 91억 미국달러)에서 2012년 기준 945억 호주달러(약 886억 미국달러)로 8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했음(그림 1 참고).

1) 자본투자(private new capital expenditure)는 호주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별 투자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광업의 경우 광산개발 관련 건설 및 고정자산 취득 등이 포함됨.

-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호주 광업부문 자본투자는 2%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인 반면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33%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증했음.
- 광업부문 자본투자의 급증은 자원매장량이 높은 서호주(Western Australia), 퀸즈랜드(Queensland)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광업투자 둔화는 서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됨(그림 2 참고).
- 한편 호주의 광업부문 자본투자는 2013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939억 호주달러를 기록하였고, 2014년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하며 190억 호주달러로 집계됨.

그림 1. 광업 자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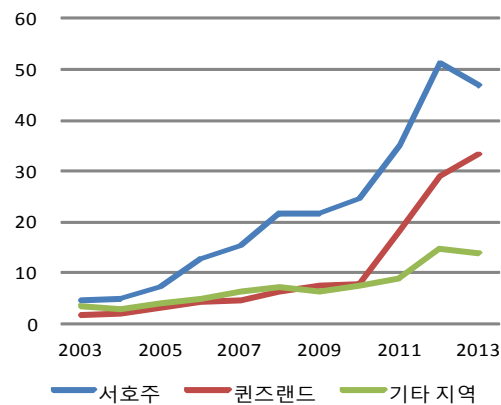
(단위: 십억 호주달러)



자료: CEIC.

그림 2. 지역별 광업 자본투자(2004~13년)

(단위: 십억 호주달러)



자료: 호주통계청.

표 1. 분기별 광업 자본투자 추이

(단위: 십억 호주달러)

연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계
2010	8.1	9.8	10.4	11.5	39.8
2011	10.5	14.4	17.3	19.9	62.1
2012	19.6	25.1	23.7	26.0	94.5
2013	20.6	24.4	24.2	24.7	93.9
2014	19.0	-	-	-	-

자료: 호주통계청.

나. 신규 광물·에너지 자원 탐사 및 프로젝트

- 호주 내 광물·에너지 자원 탐사에 민간기업이 지출한 금액은 광산투자 붐을 타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2013년에 전년대비 8% 하락하며 71억 호주달러에 그침(그림 3 참고).
- 광물·에너지 자원 탐사지출액은 2004년 18억 호주달러에서 2012년에 77억 호주달러로 증가했음.
- 반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광물·에너지 자원 탐사지출액은 큰 변동이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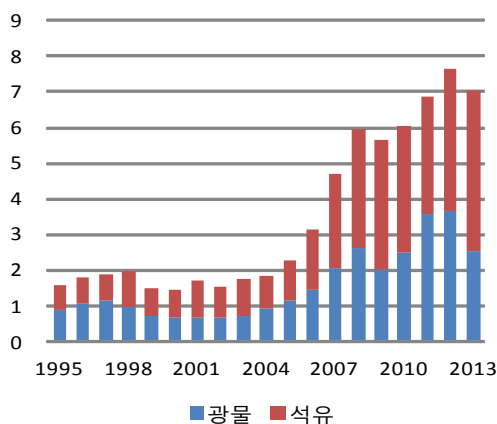
- 2013년에 석유 탐사지출이 전년대비 약 5억 호주달러 증가했으나 광물자원 탐사지출이 약 11억 호주달러 감소하며 전체 광물·에너지 탐사지출이 감소함.

■ 호주 내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age) 및 진행예정단계(Committed Stage)에 있는 광물·에너지 자원 프로젝트의 숫자 및 규모가 2012년 10월 이후 감소하고 있음(표 2 참고).

- 호주 자원에너지경제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2,810억 호주달러에서 1,600억 호주달러로 대폭 감소했음.
- 같은 기간 진행예정단계 프로젝트의 수는 87개에서 48개로 감소했으며, 총 금액 역시 2,680억 호주달러에서 2,290억 호주달러로 감소함.

그림 3. 광물·에너지 자원 탐사지출

(단위: 십억 호주달러)



자료: 호주통계청.

표 2. 신규 광물·에너지 자원 투자계획

(단위: 숫자/ 십억 호주달러)

		2012년 10월	2013년 4월	2013년 10월	2014년 4월
타당성 조사 단계	프로젝트 숫자	171	174	162	146
	프로젝트 총 금액	281	232	208	169
진행 예정 단계	프로젝트 숫자	87	73	63	48
	프로젝트 총 금액	268	268	240	229

자료: 호주 자원에너지경제국(BREE).

다. 광업부문 고용 및 기업

■ 호주 광업투자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광업부문 고용 역시 2012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전년대비 감소세를 나타냄.

- 2013년 6월 기준 광업부문 근로자 수는 19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수치로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거나 고용성장세가 둔화하였음(표 3 참고).
- 석탄부문의 고용감소는 2013년 석탄업체의 영업이익 급락에 따른 해고에 기인하며, 탐사 및 기타 보조 서비스부문의 고용은 신규투자 감소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o 세계 최대의 석탄업체인 피바디에너지(Peabody Energy)가 호주에 소유한 11개 탄광의 톤당 매출 총이익(gross

- margin)이 2012년에는 36.25미국달러였으나 2013년 4월에서 6월 사이 13.05미국달러로 급감했음.²⁾
- 2013년에는 전년대비 광업부문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각각 10% 전후로 감소했으며, 대기업 근로자 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고용의 성장세는 둔화하였음(표4 참고).

표 3. 광업부문별 고용

(단위: 천 명)

	석탄	석유 및 가스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탐사 및 기타보조 서비스	전체 광업
2008년 6월	30	10	38	13	36	128
2009년 6월	34	12	40	14	37	135
2010년 6월	34	15	45	13	37	143
2011년 6월	38	15	50	13	43	159
2012년 6월	45	18	69	13	49	193
2013년 6월	43	19	69	13	46	190

자료: 호주통계청.

표 4. 광업 기업분류별 고용

(단위: 천 명)

	2009년 6월	2010년 6월	2011년 6월	2012년 6월	2013년 6월
소기업	20	20	22	27	24
중기업	26	25	26	31	28
대기업	89	98	111	136	138
총계	135	143	159	193	190

자료: 호주통계청.

■ 호주의 광업부문 기업 수는 2012년 6월 8,598개에서 2013년 6월 기준 8,094개로, 해당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함(표 5 참고).

- 특히 광업부문의 신규기업 수가 2013년 558개로 전년대비 56% 급감함.
- o 2013년 전후로 호주 내 신규 광산개발 및 투자가 둔화된 것이 신규 광산기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표 5. 광업부문 기업

(단위: 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규 기업	1,265	1,150	1,190	1,287	1,275	558
전체 기업	7,686	7,795	7,854	8,235	8,598	8,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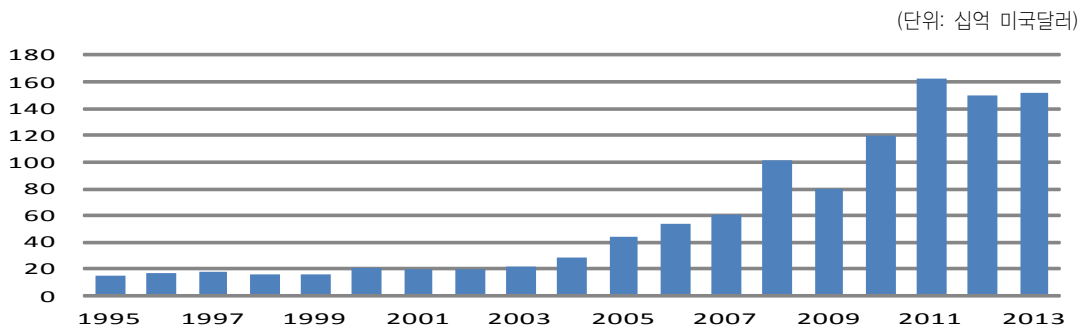
자료: CEIC.

2) *Financial Times*(2013. 8. 6), "Australia's coal miners feel the heat as China investment cools."

라. 광물자원 생산 및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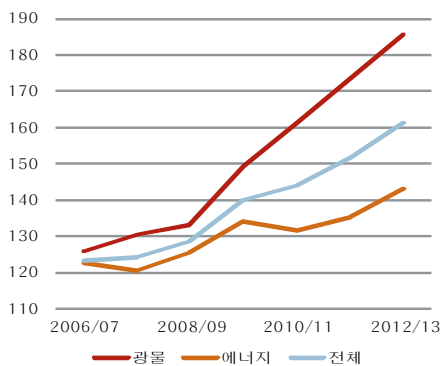
- 광업투자 확대 기간에 개발된 기존의 광산에서 광물·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은 증가하고 있음.
 - 호주 자원에너지경제국의 광물·에너지 자원 생산지수는 2010/11 회계연도³⁾에 173.6에서 2012/13 회계연도에 185.4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5 참고).
 - 2013년 광물·에너지 자원 수출은 전년대비 1.1% 증가하며 1,514억 호주달러를 기록했으며, 2014년 1/4분기 광업수출도 394억 호주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함(그림 4 및 그림 6 참고).
 - o 1995~2004년 기간에 광물·에너지 자원 수출의 연평균성장률은 8%에 그친 반면, 2004~13년에는 약 20%를 기록하였음.
 - 호주의 광업부문은 이제 투자단계를 지나 그간 개발한 광산을 이용한 생산 및 수출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⁴⁾

그림 4. 광물·에너지 자원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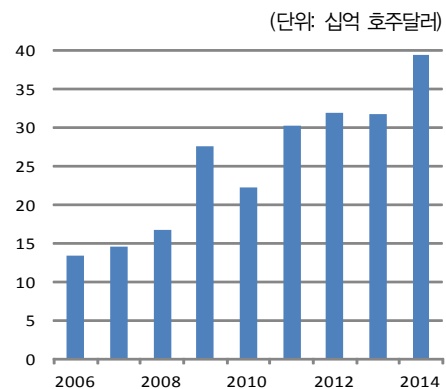
주: SITC Rev.3 2 digit의 28, 32, 33, 34 사용.
자료: UN Comtrade.

그림 5. 광물·에너지 자원 생산지수



주: 1997/8 = 100
자료: 호주 자원에너지경제국(BREE).

그림 6. 1/4분기 광업부문 수출



자료: 호주 통계청(MERCHANDISE EXPORTS, Industry (ANZSIC 2006), FOB).

3)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임.
4) IMF(2014. 2), Article IV Consultation: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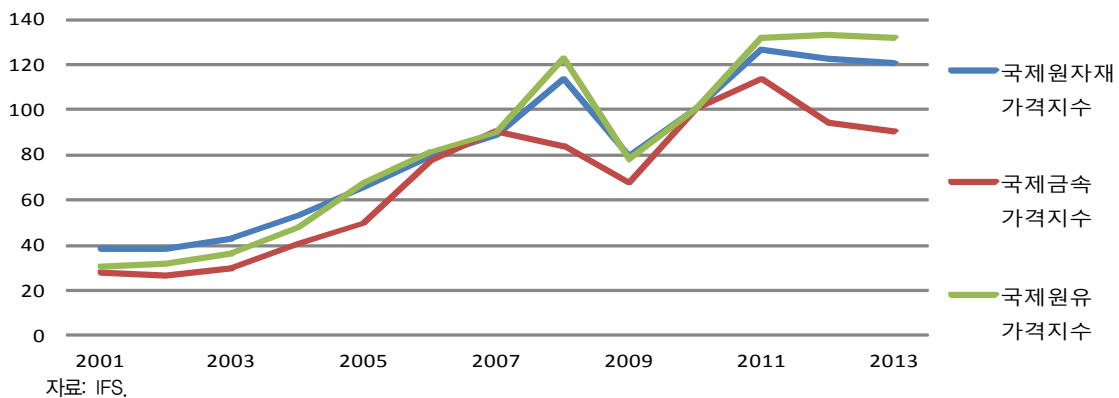
3. 광업투자 둔화 원인

■ 최근 호주의 광업투자 둔화는 신규 프로젝트 감소, 고용 및 신규 기업 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크게 1) 국제 광물·에너지 가격하락 2)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광물·에너지 자원 수요증가세 감소 3) 광산세 도입으로 구분됨.

■ 국제 광물·에너지 자원 가격하락이 호주 광업부문 투자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대부분의 광물·에너지 자원 가격이 2011년 이후 하락안정화 추세에 있고, 이는 광산업체의 매출 및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o 호주에서의 생산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 Billiton의 매출이 2011/12 회계연도에 722억 미국달러에서 2012/13 회계연도에 660억 미국달러로 하락했으며,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EBIT) 역시 272억 미국달러에서 211억 미국달러로 대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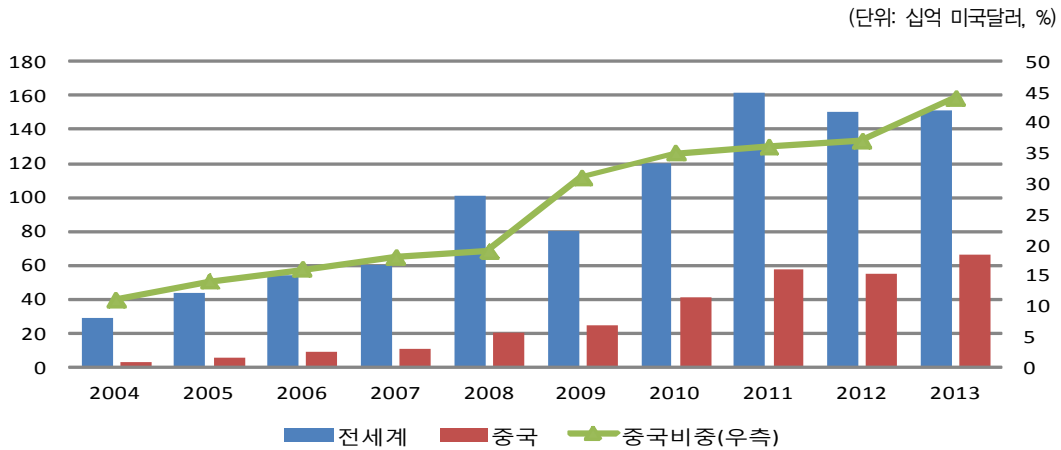
그림 7. IMF 국제 원자재가격 지수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호주 전체 광물·에너지 자원 수출의 대중 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호주의 광물·에너지 자원의 대중수출 비중은 2004년 11%에서 2009년 30%, 2013년 44%로 급격히 증가하였음(그림 8 참고).
- 호주 광업부문 수출의 최대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원자재 수요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광업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그림 8. 호주의 대 중국 광물·에너지 자원 수출



주: SITC Rev.3 2 digit의 28, 32, 33, 34 사용.

자료: UN Comtrade.

■ 광산세(MRRT: Mineral Resources Rent Tax) 도입을 통해 석탄 및 철광석 업체에 대해 순이익의 30%까지 세금을 부과한 것도 광업부문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7월 호주 정부는 광산세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석탄 및 철광석 업체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 이후 연간 순이익이 7,500만 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순이익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부과함.
- 2013년 5월에 발표된 호주 국회자료에 따르면 광산세 수입은 2012/13 회계연도에 2억 호주달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17년도에는 22억 호주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표 6 참고).

표 6. 광산세 수입(Revenue) 예측

(단위: 백만 호주달러)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2016~17년
광산세 수입예측	0	200	700	1,000	1,400	2,200

자료: 호주국회 예산안 사정자료(Budget Review 2012/13).

4. 향후 전망

■ 호주 광업부문의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호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국제 광물·에너지 가격하락과 중국의 수요감소는 호주 광업투자 둔화에 중요한 대외요인으로, 이들 대외요인의 추세가 변하지 않는 한 호주의 광업투자 역시 향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광산세의 경우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광산세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광업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o 지난 2013년 9월에 집권한 애벗 총리는 선거 당시 광산세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탄소세가 폐지된 점에 비추어볼 때 광산세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음.
- IMF는 호주 내 광업부문 투자가 2014/15년에 전년대비 22.3%, 2015/16년에는 전년대비 36.9% 감소하여 호주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음.⁵⁾
 - o 2014/15 및 2015/16 회계연도 광업투자 부문의 경제성장기여도(Growth Contribution)는 각각 -1.8%, -2.2%로 예상됨.

■ 다만 기존의 광업투자 확대결과로 광물·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은 향후 4~5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광업투자 둔화가 호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1/4분기 광업부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24% 증가한 394억 호주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IMF는 호주의 광업부문이 광산투자 시기에서 생산 및 수출 증대 시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광업수출이 2014/15 회계연도에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⁶⁾
 - o IMF는 2014/15 및 2015/16 회계연도 광업수출 부문의 경제성장기여도(Growth Contribution)를 각각 1.3%, 1.9%로 전망함.
- 호주 자원에너지경제국(BREE)은 광물·에너지 자원 수출이 2018/19 회계연도까지 증가하고,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5년간 연평균성장률 28%을 보이며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⁷⁾

표 7. 최근 호주 광업부문 분기별 수출

(단위: 십억 호주달러)

분기	수출액
2013년 1/4분기	31.7
2013년 2/4분기	35.7
2013년 3/4분기	38.8
2013년 4/4분기	40.5
2014년 1/4분기	39.4

자료: 호주 통계청(MERCHANDISE EXPORTS, Industry (ANZSIC 2006), FOB).

표 8. IMF 광업부문 성장예측

(단위: %)

		2013/14	2014/15	2015/16
성장률	광업투자	3.2	-22.3	-36.9
	광업수출	7.1	9.4	12.5

자료: IMF 2013 Article 4 consultation: Australia에서 인용. KIEP

5) IMF(2014. 2), *Article IV Consultation: Australia*.

6) *ibid.*

7) Bureau of Resources and Energy Economics(2014. 3), *Resource and Energy Quarterly*.